

드디어 ‘대학입학보장제’의 닷이 올랐습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월 22일 새 시대 모두를 위한 대입제도 ‘대학입학보장제’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을 실시함
- ▲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70년간 17차례 바뀌는 등 잦은 변화가 있었지만 성적 높은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의 욕심과, 상위권 학생을 변별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어떤 전형과 방법을 도입해도 무한 경쟁의 도구로 전락하여 입시 고통은 가중되고 있음
- ▲ 대학입학보장제는 ‘일정한 자격이 되면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입시제도’로 수시정시의 비율 변화나 새로운 전형을 늘리는 과거 대입제도 개선과는 철학과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임
- ▲ 다양한 행사 중 대학입학보장제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발언에서 입시 학원화 된 학교에서 성적으로 차별하는 문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일상화 되었는지, 현재 대학교육이 선발효과 안주로 얼마나 하향평준화 되었는지 알 수 있었음.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도 대학입학보장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열망이 있었음.
- ▲ 앞으로 대학입학보장제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은 19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 채택 운동과, 이 제도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운동을 실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3월 22일 새시대 모두를 위한 대입제도 ‘대학입학보장제’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해 11월 7일 ‘내신과 수능에서 일정한 자격이 되면 대학입학을 보장하자’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제안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하는 연속 5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차례 토론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대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입학보장제가 대입고통 해결과 다가올 미래 사회를 위한 대학교육으로 혁신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것을 확신 할 수 있었습니다. 소수를 위한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국민들을 열망과 시대적 상황을 보며 사교육걱정은 이 시대에 대학입학보장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고 출범식을 기점으로 국민운동 힘차게 시작하려합니다.



▲ 윤지희 공동대표 인사말, 김성수 정책위원 대학입학보장제 설명

사교육걱정 윤지희 공동대표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대학입시와 체제는 사교육 고통의 핵심 원인으로 사교육걱정은 지난 8년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실로 대학입학보장제라는 제도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사교육걱정이 대학체제와 입시 방법 개선을 위해 40차례 넘게 진행하면서 만든 대안들을 고스란히 담으면서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 대학입학보장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사교육걱정 정책대안 연구소 김성수 정책위원이 발표하였습니다. 김성수 정책위원은 대입 제도가 시작된 1945년부터 70년 동안 17차례 바뀌었지만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전형이든 성적 높은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의 욕심과,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촘촘히 줄 세우기 어려운 논술능력이나 창의력, 인성 등도 점수화 되고 수단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입시 방법이나 전형의 개선이 아닌 대학 입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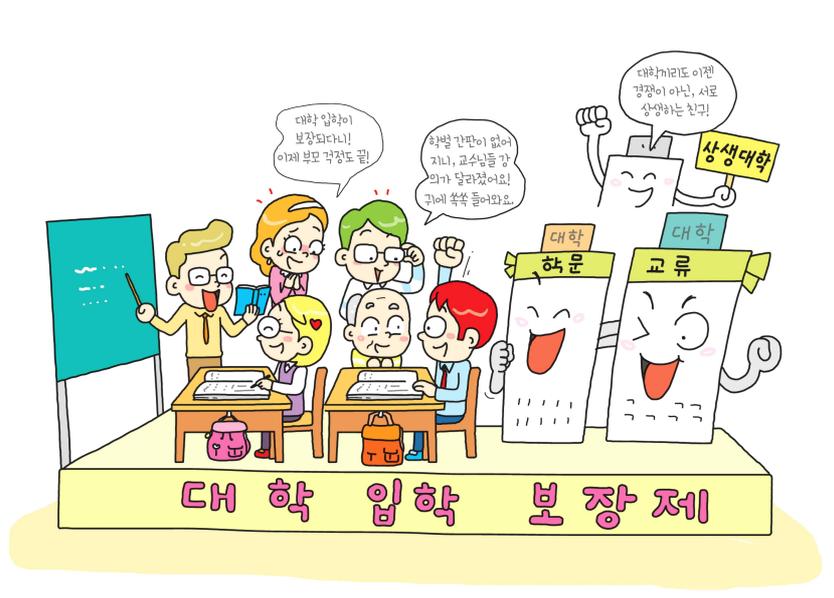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UC, CSU, CCC로 삼층화 하여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성적이 일정 수준이 되면 입학이 보장제 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방법입니다. 이런 전형으로 선발함에도 UC계열 대학은 세계대학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일반대학 어디에서나 공부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 보장제는 결국 해외 선진국형 대학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구은정(학부모), 한지연(학부모), 송인수 공동대표 발언 및 운동소개

대학입학보장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과거 어느 제도에 비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은정 학부모님은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니 중학생이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성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인서울 못하면 쓰레기 취급 받기 때문에 대학가야겠다.'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사례도 나누었습니다. 중학교 학부모이신 한지연 학부모님은 큰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둘째 아이는 대학에 안보내기로 다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입학보장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제도가 실현 된다면 둘째 아이 대학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교육걱정 송인수 공동대표는 대학입학보장제 실현을 위한 앞으로 국민운동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송인수 공동대표는 그동안 대학서열화 해결을 위한 제안이 국민들에게 설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대학입학보장제는 조감도를 보여주는 제도라는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대학입학보장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대학서열화를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잘 아는 입시를 개선을 매개로 이끌겠다는 취지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대학입학보장제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은 2가지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첫 째, 40일 정도 남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대학입학보장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도록 하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 추진된다면 대학입학보장제는 훨씬 빠르면서도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학입학보장제를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는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학입학보장제의 취지를 방식을 알게 되면 당장 실시하자고 요구 할 것이고, 그 열망이 커지면 정책 실행자들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7. 3.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 내선 507)

■ 대학입학보장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입학보장제 소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9WNjP0BygNw&feature=youtu.be>

■ ‘대학입학보장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 김성수 정책위원
<https://www.youtube.com/watch?v=biSUI0WfAbY>